

2020년 상반기 경남지역 고용동향

2020. 8

창원상공회의소

I.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본 조사는 고용보험DB를 활용한 경남지역 사업장과 근로자의 규모별, 업종별 고용동향과 퇴직 후 이동경로 등을 파악해 지역의 고용 지원정책 수립에 참고 자료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2. 조사방법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를 활용한 분석
 - 고용보험DB는 고용보험 전산망 운영을 통해 축적된 행정 데이터로써 고용정책 수립, 평가 및 노동시장 동향 분석에 신속하고 세분화된 분석에 활용하기 용이함.
 - 고용보험DB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규정에 의한 국가승인통계 (고용보험통계: 승인번호 제327002호)
 - 피보험자의 포괄범위
 -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계약형태가 ‘상용’, ‘계약직’인 근로자 단,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15시간) 미만인 자, 국가·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자 등은 적용되지 않음
 - 고용보험DB 이용 시 유의사항
 - 분기 중 최신 월의 통계는 잠정치 통계이며, 익월 발표시 확정치로 대체됨
 - 고용보험DB는 공공고용서비스 영역에 대한 전수행정자료이며, 포괄하지 않은 부분(자영업자, 미가입자, 구직급여를 받지 않는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이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
 - 서비스업은 일용근로자 비중이 대체로 높아 전체 동향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

3. 조사기간

2020년 8월 3일 ~ 8월 5일

4. 조사사항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규모별, 업종별)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자수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수(규모별, 업종별)
- 고용보험 상실자의 재취득 경로(지역별, 업종별)

II. 요약 및 시사점

- 2020년 상반기 경남의 제조업 근로자 수가 32만 9,15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근로자 수는 39만 5,278명으로 3.9% 늘어 전체 근로자 수는 77만 6,976명으로 1.2% 증가했음.

제조업 근로자 수의 경우 지난해 조선업황 회복, 타지역으로부터 유입 증가 등으로 증가를 보였으나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올해 다시금 감소한 모습을 보임.

서비스업 근로자의 경우 공공행정, 보건 서비스 등 방역 관련 업종과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 등 정부 소비촉진 수혜업종의 근로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 전체 근로자 수의 증가를 견인했음.

- 사업장 규모별로 '10인 미만 사업장'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중간 수준의 규모를 가진 '1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수는 감소했음.

이에 따라 사업장 당 근로자 수도 5.4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9명 줄었음. 자영업 등 1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률 증가에 따라 '10인 미만 사업장' 수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임.

단, 경남 도내 가장 많은 근로자 수 비중을 가진 중간 규모의 사업장 수가 감소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경남 고용시장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남지역 취업자 수가 큰 폭의 감소를 보였음. 2020년 상반기 누적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했고, 이 중 제조업은 10.8%로 급감했음. 퇴직자 수 또한 1.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경남 고용시장의 경직이 우려됨.

실제로 연령별 근로자 수 현황을 보면, 20·30대 근로자 수의 감소와 40·50·60대 근로자 수 증가가 추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더욱이 경남 전체 근로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40대와 50대이며, 지난해부터는 50대 근로자 수가 30대 근로자 수를 상회한데 이어 올해 그 격차가 더욱 커지는 등 경남 고용시장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근로자 고령화 추세는 제조업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Ⅲ. 경상남도 고용 동향

1. 경상남도 근로자 및 사업장 수 현황

1) 경상남도 규모별 근로자 및 사업장 수 현황

- 2020년 상반기 말 기준 경남지역 고용보험¹⁾에 가입한 상시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일용직 근로자 제외) 수는 77만 6,976명임.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071명(+1.2%) 증가한 수입.
규모별로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이 21만 9,10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고,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30만 3,385명(+0.8%), ‘100인 이상 300인 미만’ 10만 1,680명(-3.8%), ‘300인 이상’ 15만 2,808명(+3.%)임.
- 경남 사업장 수(고용보험 가입 사업장)도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14만 2,021개를 기록했음. 자영업 등 1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률 증가에 따라 ‘10인 미만 사업장’ 수가 12만 4,811개로 5.7% 늘었음. 반면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1만 6,075개(-0.2%),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889개(-1.4%)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모습임.
- ‘10인 미만 사업장’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중간 수준의 규모를 가진 ‘1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수는 감소하는 추세 가 이어지고 있음.
- 경남 사업장 당 근로자 수는 5.47명임. 전년 동기와 비교해 근로자 수와 사업장 수가 함께 증가한 가운데, 사업장 수 증가가 두드러져 사업장 당 근로자 수는 줄었음.

1) 고용보험 적용제의 근로자(고용보험법 제8조, 10조 및 령 제2조, 제3조)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단,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및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에 가입할 수 있음.
-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 외국인근로자(재외동포의 체류자격을 가진자 중 보험가입신청자, 영주의 체류자격을 가진자는 제외)

규모별 사업장 당 근로자 수는 '10인 미만 사업장' 1.76명, '10인 이상 100인 미만' 18.87명, '100인 이상 300인 미만' 114.38명, '300인 이상' 621.17명임.

경남 규모별 근로자 및 사업장 수

(단위 : 명)

		2016 상	2017 상	2018 상	2019 상	2020 상
경상남도	근로자 수	750,145 (0.5%)	743,338 (-0.9%)	737,661 (-0.8%)	767,905 (4.1%)	776,976 (1.2%)
	사업장 수	135,440 (7.3%)	140,546 (3.8%)	143,142 (1.8%)	135,305 (-5.5%)	142,021 (5.0%)
	평균 근로자 수	5.54	5.29	5.15	5.68	5.47
10인 미만	근로자 수	193,930 (4.4%)	199,374 (2.8%)	201,660 (1.1%)	213,691 (6.0%)	219,103 (2.5%)
	사업장 수	115,959 (7.7%)	121,168 (4.5%)	124,207 (2.5%)	118,060 (-4.9%)	124,811 (5.7%)
	평균 근로자 수	1.67	1.65	1.62	1.81	1.76
10인 이상 100인 미만	근로자 수	296,544 (0.7%)	296,847 (0.1%)	293,468 (-1.1%)	301,097 (2.6%)	303,385 (0.8%)
	사업장 수	18,081 (5.4%)	17,968 (-0.6%)	17,582 (-2.1%)	16,100 (-8.4%)	16,075 (-0.2%)
	평균 근로자 수	16.40	16.52	16.69	18.70	18.87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 수	121,418 (-3.0%)	112,142 (-7.6%)	109,557 (-2.3%)	105,661 (-3.6%)	101,680 (-3.8%)
	사업장 수	1,131 (-1.3%)	1,130 (-0.1%)	1,085 (-4.0%)	902 (-16.9%)	889 (-1.4%)
	평균 근로자 수	107.35	99.24	100.97	117.14	114.38
300인 이상	근로자 수	138,253 (-2.0%)	134,975 (-2.4%)	132,976 (-1.5%)	147,456 (10.9%)	152,808 (3.6%)
	사업장 수	269 (2.3%)	280 (4.1%)	268 (-4.3%)	243 (-9.3%)	246 (1.2%)
	평균 근로자 수	513.95	482.05	496.18	606.81	621.17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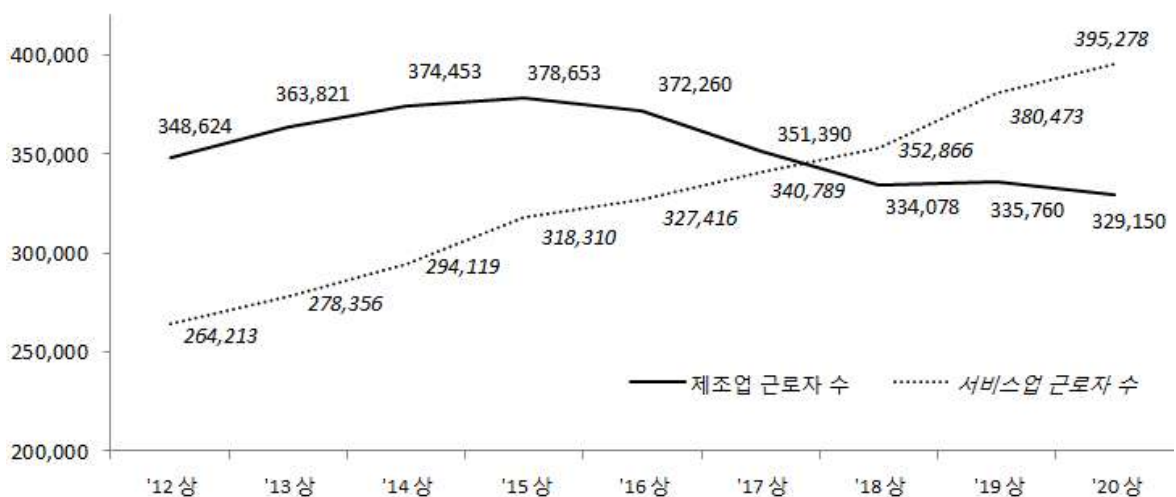
※ 반기말 상시(상용+임시) 근로자 기준,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

2) 경상남도 업종(대분류) 근로자 및 사업장 수 현황

- 업종별(대분류) 근로자 및 사업장 수 동향을 살펴보면, 2020년 상반기 말 경남 근로자 수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가운데 제조업 근로자 수는 2.0% 감소한 32만 9,150명을 기록한 반면, 서비스업 근로자 수는 39만 5,278명으로 3.9% 증가했음.
- 제조업 근로자 수 감소와 서비스업 근로자 수 증가로 2018년 상반기 이후 서비스업 근로자 수가 제조업 근로자 수를 상회했으며, 현재는 그 격차가 더욱 커졌음.
- 제조업 근로자 수는 감소했지만, 사업장 수는 3만 1,238개로 2.6% 증가했음. 근로자 수 감소와 사업장 수 증가로 사업장 당 근로자 수는 10.5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명 줄었음. 제조업 사업장 당 근로자 수가 추세 감소를 보이고 있어, 경남 제조업의 소규모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 서비스업 근로자 수 증가와 더불어 사업장 수도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7만 7,702개를 기록했음. 근로자 수와 사업장 수 모두 증가하며 사업장 당 근로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0.1명 줄어든 5.09명을 나타냈음. 단, 서비스업 사업장 당 근로자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경남 제조업 및 서비스업 근로자 수 동향

(단위 : 명)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연말 기준

경상남도 업종별 근로자 및 사업장 수 동향

(단위 : 명)

		2016 상	2017 상	2018 상	2019 상	2020 상
경상남도	근로자 수	750,145 (0.5%)	743,338 (-0.9%)	737,661 (-0.8%)	767,905 (4.1%)	776,976 (1.2%)
	사업장 수	135,440 (7.3%)	140,546 (3.8%)	143,142 (1.8%)	135,305 (-5.5%)	142,021 (5.0%)
	평균 근로자 수	5.54	5.29	5.15	5.68	5.47
제조업	근로자 수	372,260 (-1.7%)	351,390 (-5.6%)	334,078 (-4.9%)	335,760 (0.5%)	329,150 (-2.0%)
	사업장 수	29,912 (3.7%)	29,502 (-1.4%)	29,918 (1.4%)	30,445 (1.8%)	31,238 (2.6%)
	평균 근로자 수	12.45	11.91	11.17	11.03	10.54
건설업	근로자 수	36,516 (2.8%)	37,187 (1.8%)	36,835 (-0.9%)	36,902 (0.2%)	37,645 (2.0%)
	사업장 수	36,047 (9.4%)	38,107 (5.7%)	39,887 (4.7%)	27,266 (-31.6%)	29,775 (9.2%)
	평균 근로자 수	1.01	0.98	0.92	1.35	1.26
서비스업	근로자 수	327,416 (2.9%)	340,789 (4.1%)	352,866 (3.5%)	380,473 (7.8%)	395,278 (3.9%)
	사업장 수	66,900 (7.9%)	70,199 (4.9%)	70,523 (0.5%)	74,609 (5.8%)	77,702 (4.1%)
	평균 근로자 수	4.89	4.85	5.00	5.10	5.09
기타	근로자 수	13,953 (-0.1%)	13,972 (0.1%)	13,882 (-0.6%)	14,770 (6.4%)	14,903 (0.9%)
	사업장 수	2,581 (4.7%)	2,738 (6.1%)	2,814 (2.8%)	2,985 (6.1%)	3,306 (10.8%)
	평균 근로자 수	5.41	5.10	4.93	4.95	4.51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연(年)말 상시(상용+임시) 근로자 기준,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

※ 서비스업은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타는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함.

- 제조업은 경남을 비롯한 국내 산업의 주축이며, 제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바탕으로 서비스업이 성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서비스업의 경우 업종 특성상 제조업에 비해 장기적인 양질의 일자리로 구분하기 힘들며, 최초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 취업만큼 퇴직 또한 활발한 경향을 띰.
이러한 점으로 비추어볼 때 서비스업 일변도로 증가하는 모습은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한 경남에 있어 장기적으로 긍정적 모습으로 보기 힘들.
- 경남은 전통적으로 대규모 장치산업과 인력투입 중심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 수 기준으로 대규모 사업장이 몰려 있는 지역임. 이에 따라 고용환경 변화에도 가장 민감한 지역으로 꼽힘.
생산설비의 기술 향상과 국제 분업의 확대로 대규모 인력 투입의 수요가 줄어드는 한편, 산업트렌드와 통상환경의 급변 등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제조업의 고정비 지출 부담이 커지면서 사업장 당 근로자 수가 추세적 감소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감소추세는 경남 제조업의 사업장 당 근로자 수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2. 경상남도 제조업 근로자 수 현황

- 2020년 상반기 경남 제조업의 업종별 근로자 수는 ‘기타 운송장비’ 6만 8,620명, ‘기계 및 장비’ 6만 3,364명, ‘금속가공제품’ 3만 4,392명, ‘자동차 및 트레일러’ 3만 3,264명, ‘전기장비’ 2만 4,134명 등임.
- 업종별 근로자 수 증감을 보면, ‘전기장비’(+10.4%),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1.6%),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1.5%)을 제외한 전 업종이 근로자 수 감소를 보였음.
특히 ‘1차 금속’(-10.2%), ‘고무 및 플라스틱’(-6.9%), ‘자동차 및 트레일러’(-4.8%), ‘비금속 광물제품’(-4.7%) 등의 제조업에서 근로자 수 감소가 두드러졌음.

경남 제조업 업종별 피보험자 수 동향

(단위 : 명)

	2016 상	2017 상	2018 상	2019 상	2020 상
제조업	372,260 (-1.7%)	351,390 (-5.6%)	334,078 (-4.9%)	335,760 (0.5%)	329,150 (-2.0%)
기타 운송장비	101,545 (-5.3%)	82,124 (-19.1%)	66,428 (-19.1%)	69,722 (5.0%)	68,620 (-1.6%)
기타 기계 및 장비	64,307 (-1.7%)	63,923 (-0.6%)	64,701 (1.2%)	64,719 (0.0%)	63,364 (-2.1%)
금속가공제품 (기계 및 가구 제외)	36,970 (-2.7%)	35,034 (-5.2%)	34,699 (-1.0%)	34,876 (0.5%)	34,392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36,394 (1.0%)	36,824 (1.2%)	35,587 (-3.4%)	34,929 (-1.8%)	33,264 (-4.8%)
전기장비	22,248 (2.1%)	22,261 (0.1%)	21,718 (-2.4%)	21,854 (0.6%)	24,134 (10.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24,700 (-0.1%)	24,542 (-0.6%)	23,183 (-5.5%)	22,748 (-1.9%)	21,189 (-6.9%)
식료품	14,648 (3.4%)	14,842 (1.3%)	15,264 (2.8%)	15,704 (2.9%)	15,393 (-2.0%)
1차 금속	17,623 (-2.2%)	17,318 (-1.7%)	16,761 (-3.2%)	15,918 (-5.0%)	14,288 (-10.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9,374 (-1.5%)	9,399 (0.3%)	9,605 (2.2%)	9,879 (2.9%)	9,840 (-0.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약품 제외)	9,129 (3.7%)	9,282 (1.7%)	9,204 (-0.8%)	9,137 (-0.7%)	8,912 (-2.5%)
비금속 광물제품	7,431 (-0.9%)	7,503 (1.0%)	7,472 (-0.4%)	7,045 (-5.7%)	6,716 (-4.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5,454 (1.7%)	5,507 (1.0%)	5,617 (2.0%)	5,602 (-0.3%)	5,692 (1.6%)
섬유제품 (의복제외)	5,909 (1.6%)	5,420 (-8.3%)	5,328 (-1.7%)	5,267 (-1.1%)	5,187 (-1.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3,972 (-3.3%)	3,930 (-1.1%)	4,059 (3.3%)	3,920 (-3.4%)	3,978 (1.5%)
기타제품	12,556 (2.6%)	13,481 (7.4%)	14,452 (7.2%)	14,440 (-0.1%)	14,181 (-1.8%)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연(年)말 상시(상용+임시) 근로자 기준,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

※ 기타제품 제조업에는 목재 및 나무제품, 가죽·가방 및 신발, 음료, 가구, 의복,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담배,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을 포함.

3. 경상남도 서비스업 근로자 수 현황

- 2020년 상반기 말 경남 전체 근로자 수 증가를 이끌고 있는 서비스업의 근로자 수는 전년 대비 3.9% 증가한 39만 5,278명임. 업종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가 11만 1,487명으로 가장 많고, ‘도매 및 소매’ 4만 5,707명, ‘전문·과학 및 기술’ 3만 4,005명, ‘부동산’ 2만 8,459명, ‘숙박 및 음식점’ 2만 6,797명, ‘교육’ 2만 8,315명, ‘운수 및 창고’ 2만 5,454명 등임.

경남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추이

(단위 : 명)

	2016 상	2017 상	2018 상	2019 상	2020 상
서비스업	327,416 (2.9%)	340,789 (4.1%)	352,866 (3.5%)	380,473 (7.8%)	395,278 (3.9%)
보건업 및 사회복지	85,961 (0.7%)	90,176 (4.9%)	94,133 (4.4%)	103,889 (10.4%)	111,487 (7.3%)
도매 및 소매	39,673 (9.7%)	41,033 (3.4%)	42,588 (3.8%)	44,311 (4.0%)	45,707 (3.2%)
전문, 과학 및 기술	31,041 (3.3%)	31,344 (1.0%)	31,452 (0.3%)	32,516 (3.4%)	34,005 (4.6%)
부동산	20,233 (3.8%)	22,968 (13.5%)	24,843 (8.2%)	26,843 (8.1%)	28,459 (6.0%)
숙박 및 음식점	18,666 (22.4%)	20,239 (8.4%)	22,271 (10.0%)	25,929 (16.4%)	26,797 (3.3%)
교육	23,282 (0.8%)	23,330 (0.2%)	23,972 (2.8%)	27,097 (13.0%)	28,315 (4.5%)
운수 및 창고	26,802 (1.2%)	26,681 (-0.5%)	25,856 (-3.1%)	27,145 (5.0%)	25,454 (-6.2%)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24,630 (-0.4%)	25,767 (4.6%)	25,933 (0.6%)	25,579 (-1.4%)	24,615 (-3.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6,155 (-5.4%)	16,729 (3.6%)	19,062 (13.9%)	22,216 (16.5%)	25,318 (14.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15,420 (-1.4%)	16,079 (4.3%)	15,703 (-2.3%)	16,549 (5.4%)	16,958 (2.5%)
금융 및 보험	15,374 (1.2%)	15,299 (-0.5%)	15,477 (1.2%)	15,870 (2.5%)	15,857 (-0.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5,994 (6.4%)	6,597 (10.1%)	6,832 (3.6%)	7,492 (9.7%)	7,186 (-4.1%)
정보통신업	4,185 (0.4%)	4,547 (8.6%)	4,744 (4.3%)	5,037 (6.2%)	5,120 (1.6%)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연(年)말 상시(상용+임시) 근로자 기준,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

- 업종별로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14.0%), ‘보건업 및 사회복지’(+7.3%), ‘부동산’(+6.0%), ‘전문·과학 및 기술’(+4.6%), ‘교육’(+4.5%) 서비스 근로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고, ‘도매 및 소매’(+3.2%), ‘숙박 및 음식점’(+3.3%) 등 정부 소비 촉진 정책의 수혜업종도 근로자 수 증가를 보였음. 반면, ‘운수 및 창고’(-6.2%), ‘예술·스포츠 및 여가’(-4.1%),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3.8%)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조업 생산감소와 소비자의 외부활동 축소 등의 영향으로 관련 업종의 근로자 수는 감소했음.
- 여전히 제조업 근로자의 서비스업으로의 이직과 서비스업종의 고용보험 가입률 증가 등의 이유로 서비스업 근로자 수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음.

4. 경상남도 연령별, 성별 근로자 수 현황

- 경남 연령별로 근로자 수는 ‘20대’ 9만 5,431명(-2.7%), ‘30대’ 17만 2,379(-3.6%)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 ‘40대’ 21만 1,241명(+0.7%), ‘50대’ 19만 1,833명(+3.1%), ‘60대 이상’ 10만 2,442명(+12.8%)로 증가했음. 청년층 근로자 수의 감소와 중장년층 근로자 수 증가가 추세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경남 노동시장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경남 전체 근로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40대와 50대이며, 지난해부터는 50대 근로자 수가 30대 근로자 수를 상회한데 이어 올해 그 격차가 더욱 커졌음.
- 20·30대 근로자 수 감소는 제조업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5년 전(2016년 상반기)과 비교했을 때, 제조업 남성 근로자 기준으로 20대 근로자 수는 29.6%, 30대 근로자 수는 23.9% 감소했음. 반면 같은 기간 제조업 40대 근로자 수는 0.6%, 50대 근로자 수는 1.4%, 60대 이상 근로자 수는 9.3% 늘어, 경남 전체 근로자 수 증가를 이끌고 있는 연령대는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인 것으로 나타났음.
- 경남 근로자의 남녀 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근로자의 남성 비율은 61.3%, 여성은 39.4%를 점했음. 이중 제조업만을 놓고 보면, 남성이 79.3%, 여성이 20.7%로 제조업의 남성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이러한 남녀 근

로자의 성비 차이는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음.

경남 연령별, 성별 근로자 수 추이

(단위 : 명)

	2016 상	2017 상	2018 상	2019 상	2020 상
합 계	750,145	743,338	737,661	767,905	776,976
남 (제조업)	489,188 (297,361)	476,511 (278,579)	463,167 (263,286)	476,004 (265,254)	476,584 (260,881)
여 (제조업)	264,226 (74,899)	270,235 (72,811)	277,614 (70,792)	296,800 (70,506)	306,050 (68,269)
19세 이하	4,525	4,290	4,004	4,293	3,650
남 (제조업)	3,177 (2,513)	3,021 (2,386)	2,892 (2,195)	3,032 (2,189)	2,375 (1,671)
여 (제조업)	1,348 (466)	1,269 (351)	1,112 (235)	1,261 (221)	1,275 (157)
20~29세	106,145	100,071	96,414	98,125	95,431
남 (제조업)	60,444 (40,934)	55,800 (35,757)	52,977 (32,160)	53,803 (31,043)	52,057 (28,798)
여 (제조업)	45,701 (10,966)	44,271 (9,765)	43,437 (8,587)	44,322 (8,257)	43,374 (7,616)
30~39세	198,916	189,400	179,801	178,843	172,379
남 (제조업)	139,960 (95,421)	130,539 (86,635)	120,812 (78,612)	118,311 (76,508)	112,782 (72,584)
여 (제조업)	58,956 (14,600)	58,861 (14,107)	58,989 (13,960)	60,532 (14,111)	59,597 (13,882)
40~49세	214,791	211,445	207,630	209,863	211,241
남 (제조업)	136,141 (83,739)	132,481 (79,053)	127,846 (74,978)	128,712 (75,557)	129,196 (76,022)
여 (제조업)	78,650 (24,729)	78,964 (23,436)	79,784 (22,032)	81,151 (20,701)	82,045 (19,534)
50~59세	162,126	167,495	172,740	185,988	191,833
남 (제조업)	103,693 (60,506)	104,933 (59,474)	105,561 (58,824)	110,898 (61,240)	112,568 (61,343)
여 (제조업)	58,433 (20,241)	62,562 (20,884)	67,179 (21,370)	75,090 (22,135)	79,265 (21,643)
60세 이상	53,939	60,174	66,497	77,375	87,496
남 (제조업)	45,773 (14,248)	49,737 (15,274)	53,079 (16,517)	61,248 (18,717)	67,606 (20,463)
여 (제조업)	21,138 (3,897)	24,308 (4,268)	27,113 (4,608)	34,444 (5,081)	40,494 (5,437)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연(年)말 상시(상용+임시) 근로자 기준,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

5. 경상남도 근로자 취업 및 퇴직 현황

- 2020년 상반기(누적) 취업자 수는 20만 5,276명으로 전년 대비 7.6% 감소했음. 이 중 제조업 취업자 수는 6만 1,676명으로 전년 대비 10.8% 감소했고,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12만 8,296명으로 6.3% 줄었음.
- 지난해 신입취업자를 중심으로 취업자 수 증가가 이루어졌으나, 올해 상반기(누적)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감으로 취업자 수가 큰 폭의 감소를 보였음. 이는 제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업종별 취업 및 퇴직자 수

(단위 : 명)

	2016 상	2017 상	2018 상	2019 상	2020 상
취업	225,807 (1.7%)	212,111 (-6.1%)	208,650 (-1.6%)	222,092 (6.4%)	205,276 (-7.6%)
제조업	97,665 (-0.1%)	85,138 (-12.8%)	74,557 (-12.4%)	69,145 (-7.3%)	61,676 (-10.8%)
서비스업	112,299 (3.3%)	111,501 (-0.7%)	119,409 (7.1%)	136,966 (14.7%)	128,296 (-6.3%)
신입	26,857 (-9.8%)	22,742 (-15.3%)	22,051 (-3.0%)	25,645 (16.3%)	23,917 (-6.7%)
제조업	9,917 (-10.2%)	7,626 (-23.1%)	6,092 (-20.1%)	6,409 (5.2%)	6,056 (-5.5%)
서비스업	15,676 (-10.8%)	14,046 (-10.4%)	14,927 (6.3%)	18,096 (21.2%)	16,846 (-6.9%)
경력	198,950 (3.5%)	189,369 (-4.8%)	186,599 (-1.5%)	196,447 (5.3%)	181,359 (-7.7%)
제조업	87,748 (1.2%)	77,512 (-11.7%)	68,465 (-11.7%)	62,736 (-8.4%)	55,620 (-11.3%)
서비스업	96,623 (6.0%)	97,455 (0.9%)	104,482 (7.2%)	118,870 (13.8%)	111,450 (-6.2%)
퇴직	226,079 (9.8%)	211,987 (-6.2%)	203,963 (-3.8%)	208,681 (2.3%)	206,688 (-1.0%)
제조업	105,220 (9.5%)	94,861 (-9.8%)	79,774 (-15.9%)	67,858 (-14.9%)	69,860 (3.0%)
서비스업	104,806 (11.2%)	101,102 (-3.5%)	108,556 (7.4%)	124,141 (14.4%)	121,038 (-2.5%)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경남 제조업의 취업자 수 감소는 2015년 상반기부터 6년 연속이며, 2017년·2018년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에는 두 자릿수의 감소를 보였음. 이는 고용 유연성이 낮은 제조업의 특성 상 신규 고용에 대한 의지가 감소하는 가운데, 경기침체에 따른 중장년층의 이직 성향도 크게 줄어들어 따라 고용 수요가 줄어들어 따른 것임.
- 퇴직자 수 또한 1.0% 감소했음. 취업과 퇴직 모두 감소하는 추세가 뚜렷해 고용시장이 경직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하지만, 제조업의 퇴직자 수는 3.0% 늘었음.